**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연합예배, 성찬식

**ㆍ제직회:** 다음 주일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ㆍ정재봉의 사진특강:** 10월 14일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

**ㆍ지난주 방문:** 박누리, 홍성욱

**ㆍ귀가:** 구가희 **한국방문:** 신일수

**ㆍ생일:** 김정훈, 허재혁, 김종현

**ㆍ함께하는 독일신학 세미나:** 10/1(월)-2(화) 프랑크푸르트 (손, 이, 신 목사 참석)

**◆말씀일기 일정**

일/롬14:13-23 월/롬15:1-13 화/롬15:14-21 수/롬15:22-33

목/롬16:1-16 금/롬16:17-27 토/예레미야21:1-14 일/렘22:1-9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47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9월 30일** | **10월 7일** | **10월 14일** | **10월 21일** |
| **예배기도** | 김평님 | 송인선 | 백능현 | 김학순 |
| **말씀일기** | 박요셉 | 김성희 | 임선향 | 한상철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박성호, 송인선 | | | |
| **애찬봉사** | 밥상 넷 | 추수감사주일 | 밥상 다섯 | 나라주일 |

**35-39호 2018년 9월 30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3:14)

주일예배: 12:00 Fliedner Saal

유초등부예배: 12:00 Teestube

청소년부예배: 12:00 Teestube

토요기도회:07:00 Teestube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재용 목사** HP. 0157-5346 6942

**교육/ 신동철 목사** HP. 0177-231 7003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9장4절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83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03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 김평님 집사  박요셉 집사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행6:1-7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사랑은 배려입니다**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64장…………………………………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다함께  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롬14장 '서로 세워주라' ◈**

음식 문제로 혹은 절기 문제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서로 세워주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19절 말씀의 우리말 비전성경 번역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 주는 일에 힘씁시다.”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덕을 세운다’는 간접적 표현 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세워준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덜 위선적이지 않은가!

사실, 사소해 보이는 이 절기 문제나 음식 문제가 의외로 간단하지가 않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로 이견이 많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했던 것 같다. 자칫 교회 분열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의 염려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서로 세워주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편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직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도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어느 경우든 주를 위하여 살고 감사하며 산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양심과 “믿음을 따라”(23) 사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 받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든다. 내 평생의 믿음과 사역이 겨우 먹고 마시고 피우는 몇 가지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교우들에게도 그런 거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사는 정도를 위한 것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전통이니 윤리니 해가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 줄 것처럼 살다가 가야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까운가? 길지 않은 인생, 예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 본받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17)을 만끽하고 전파하며 살다 가야지.

돌아보면 안타까웠던 일들도 많지만, 행복한 기억들도 적지 않아 감사하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대형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다녀오던 길, 고속버스가 휴게소를 막 출발하는데, 모 집사님께서 내게 캔 콜라를 건네 주셨다. “목사님, 많이 더우시죠. 목 좀 축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 한 모금 쭉 들이키는 데, 맛이…헐, 그건 콜라가 아니라 시원한 맥주였다. 집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던 모습, 그 콜라 옷을 입은 사랑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